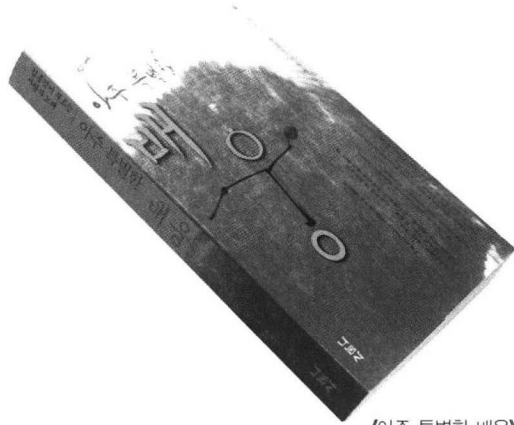


## 《아주 특별한 배웅》

# 김홍겸의 사랑과 노래



글\_김응교 시인·와세다대학 객원교수

《아주 특별한 배웅》

김홍겸과 벗들 지음 | 나눔사 | 304쪽 | 값 10,000원

2007년이다. 2007년은 1987년 6월 항쟁 20주년이 되는 해다. 2007년은 IMF 10주년이 되는 해다. 대통령 선거가 있을 2007년은 형식화된 민주주의까지 그나마 붕괴될 위험, 양극화가 더 가속화 될 위기의 시대다.

또한 2007년은 개인과 민족에 대한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의 부흥운동이 100주년 되는 해다. 1907년의 소박한 회개운동과 달리 이 땅의 교회들은 교회를 사유화하고 세습화하고 이웃을 외면하고 있다.

민주화를 위해 눈물 흘렸던 시간을 망각해가는, 배고픈 이에 대해 말하면 촌스럽게 생각하는, 오로지 교회 건물 확장만을 꿈꾸는 '환멸의 시대'에, 10년 전에 서른여섯의 나이로 먼저 하늘나라에 간 그 친구의 삶을 다시 전하고 싶었다.

### 이 시대에 더욱 그리운 사람

김홍겸, 그는 10년 전 1997년 1월 19일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친구들은 작년 2월부터 카페 (<http://cafe.daum.net/kcomrade>)를 만들어 1년 동안 동화 같은 우정을 나누며, 그의 유고집 《아주 특별한 배웅》(나눔사)을 펴냈다.

그는 학생운동과 빈민운동을 하다가 1997년 위암으로 사망하였다. 가수 안치환이 부르기도 했던 민중가요 〈민중의 아버지〉의 작사·작곡가이기도 한 그는 대학 2학년(연세대학교 신학과) 때부터 파주 백석교회와 신림동 낙골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면서 빈민운동에 투신, 1986년부터는 서울시철거민협의회(서철협)와 전국빈민연합, 노점상 연합회 등에서 활발히 활동한 바 있다. '김홍겸과 벗들'은 그와 어울렸던 이들의 작은 공동체이기도 하다. 대학 선후배는 물론이고 함께 도시빈민 노점상 운동을 했던 활동가들과, 교회학교에서 그에게 성경공부를 배운 학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또한 그들은 10년 전, 암 투병중인 그를 위해 살아있는 사람의 장례식을 치러준 주인공들이기도 하다.

“1996년 11월,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왔던 오충일 목사님이 ‘홍겸이 죽은 다음에 장례식에 모여서 아쉬워 말고, 홍겸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 벗들이 함께 모여 미리 장례식을 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들 좋은 생각이라고 마음을 모았고 며칠 뒤 세브란스 병원 작은 채플실에서 홍겸이와 마주보며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함께 낙골교회에서 활동했던 김기돈(〈작은 것이 아름답다〉 편집장) 씨는 눈물과 감격으로 범벅이 됐던 그 날을 생에 잊을 수 없는 날로 꼽았다. 그 때의 그 감동을 잊지 못한 벗들은 책 제목을 ‘아주 특별한 배웅’으로 정한 것이다.

### 노래 〈민중의 아버지〉

성경에는 곳곳에 고통당하는 민중들이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탄원이 나온다며 박철 목사는 노래 〈민중의 아버지〉를 가장 성서적인 고백이라고 했다. 시편 기자는 “야훼여!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영 나를 잊으시렵니

까? 밤낮없이 쓰라린 이 마음, 이 아픔을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시편 13:1~2)하며 울부짖는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최후의 절규를 부르짖는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며 울부짖는다. 김홍겸은 1980년대에 이와 같은 절실한 신앙고백을 한국의 젊은이로서 풀어냈다.

“우리들에게 응답하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소서 귀머지  
은 하느님/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당한 하느님/ 그래도 내  
게는 하나뿐인 민중의 아버지/ 하느님 당신은 죽어 버렸  
나 어두운 골목에서 울고 있을까/ 쓰레기 더미에 묻혀버  
렸나 가엾은 하느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아우슈비츠에서 죽어가는 사  
람과 함께 고통 받고 있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한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엘리 위젤도 대표작 《흑야》에서, “하  
느님은 지금 유대인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고백한  
다. 엔도 슈사쿠의 소설 《침묵》에서 로도리코 신부는 인  
간의 가장 나약한 한계에 섰을 때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  
다. “뱀아도 괜찮다. 너의 발을 지금 아프겠지. 오늘날까  
지 나의 얼굴을 밟은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아플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나누어 갖겠다. 그 때문에  
나는 존재하니까.”

몰트만과 엘리 위젤에게 하나님은 ‘아우슈비츠에서 함께 고통받는 하나님’ 이었고, 엔도 슈사쿠의 소설에서 하나님  
은 ‘뱀아도 되는 후미에(그림판)’ 였다.

나는 홍겸이가 지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지상에서 탄압받은 숭한 영혼들을 생각하곤 한다. 그에게 하나님은,  
말 못한 이들과 함께 귀 머지 하느님이요, 분신하여 죽은 이들과 함께 화상당한 하느님이요, 수배 당하여 어두운  
골목에 숨어 다니며 우는 자와 함께 하는 하느님이었고, 쓰레기더미에 버려지는 사람들과 함께 버려진 처절한 하  
나님이었다. 이보다 더 처절한 신앙고백이 더 있을까?

### 그의 삶은 아직 현재형

1984년 나는 파주 백석교회에서 김홍겸, 박문수와 함께 교육전도사로 있었다. 김홍겸은 철거민 지역인 신림동  
낙골교회로 헌신하기 전에 폭설을 맞으며 산언덕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나는 그의 부르짖음을 평생 잊지 못한  
다. 그의 글과 노래는 부르짖음의 기도이다.

10년 전에 벗들은 “나무상자에서 / 삐쩍 말라비틀어진 / 네 몸을 꺼내어 / 땅에 내려놓으며 / 너를 / 땅이 아니라  
가슴에 묻겠노라고 / 다짐했었다”(김저성)라며 그를 문었던, 그의 벗들, ‘김홍겸과 벗들’ 은 고인의 10주기를 맞아 2  
월 13일(화) 저녁 7시에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채플실에서 10주기 기념행사와 출판 기념회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1997년 젊은 나이로 요절하기까지 고인의 삶의 기록이자 그가 이루고자 했던 꿈의 메시지가기도 한 이 책에는  
수필과 옥중서신, 투병일기, 시, 노랫말과 악보 등이 실려 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행동하는 예수를 닮고자 했  
던 젊은 신학자의 고뇌와 고통 받고 소외받은 이웃들의 사랑했던 한 젊은이의 숭고함, 더불어 사는 삶의 공동체를  
꿈꾸고 노래했던 치열한 젊은 혁명가의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 친구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무거워진다. 그의 삶은 아직 현재형이다. 그가 웃고 있는 사진은, 지금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똑똑히 견고 있는지 항상 되묻게 한다. **✎**



빈민운동가 김홍겸은 10년 전인 1997년 1월 19일 세상을 떠났다.